

조선후기 문헌설화에 나타난 성의식의 변모 양상

송 철 호*

차 례

- | | |
|-----------------------|--------------------|
| I. 서 론 | 2. 자유로운 성의식의 표출 |
| II. 성의식 변모의 시대·사회적 배경 | IV. 작가의식의 성장과 그 한계 |
| III. 성의식 변모의 구체적 양상 | V. 결 논 |
| 1. 烈과 格下와 인간 본성의 긍정 | |

I. 서 론

조선후기 문헌설화 가운데는 성과 관련된 문제를 다룬 작품들이 적지 않다.¹⁾ 이들 작품들은 시정을 중심으로 이 시대의 남녀관계의 단면을 엿볼 수 있게 해주는데, 대체로 관념적이고 위선적이기까지 한 봉건적 도덕의 굴레에서 벗어나 솔직하고 자연스럽게 인간 감정과 인간 본연의 욕망을 노출시키고 긍정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이들 작품은 규범이나 체면에 대한 인간본성의 우위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 性·情을 烈보다 더욱 근원적이고 가치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내포하고 있다.

* 동의대학교 강사

1) 특히 <姦通談>·<改嫁談>·<淫婦談>이 그러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그렇게 많지 못한 편이다.²⁾ 본고는 이들 작품이 지니고 있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주목하여 먼저 이들 작품들이 중세체제의 붕괴와 근대화 지향이라는 조선후기의 역사적 현상과 관련하여 당대의 세태·풍속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살펴 보겠다. 이를 바탕으로 당대인들의 성의식의 변모 양상을 살펴 보고 나아가 이들 작품들이 봉건적 제구속을 탈피하여 근대적 인간해방을 지향하는 이 시기의 문학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 보겠다.

본고에서 주 자료로 이용한 것은 『靑邱野談』·『於野談』·『東野彙輯』·『記聞叢話』이며, 이 외에 『기문습유』·『차산필담』·『이향전문록』·『동패락송』·『삼교만록』·『천예록』 등을 참고로 하였다.

II. 성의식 변모의 시대·사회적 배경

문헌실화집은 주로 18세기 이후에 편찬되었다. 따라서 조선후기의 현실과 삶의 방식은 이러한 문헌실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임병양란이라는 민족적 수난을 겪은 조선후기는 상품화폐 경제의 발전에 따른 생산력 증대와 체제 내적 모순의 발로로 중세체제가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근대를 지향하는 특징을 보여 준다. 이러한 특징은 새로운 사회 관계의 형성, 중서·평민층에서의 신흥부자의 대두와 경제력 장악에 의한 여향인의 실질적인 신분상승, 자유분방하고 생기 발랄한 시정 풍속,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윤리관 및 가치관의 형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들 중 성의식의 변모를 가져온 주요한 시대·사회적 배경으로는 봉건지배층 내부의 부패·모순과 신분제의 붕괴로 인한 유교적 지배체제의 약화, 그리고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에 따른

2) 이런 점에서 김상조(朝鮮後期野談에 나타난 再嫁의 樣相과 意味, 한국학논집 4, 단국대 한문학회, 1986)에 이은 손정희(孀女再嫁型 野談 研究, 문화전통논집 4, 경성대 향토문화연구소, 1996)의 연구성과는 주목받을 만하다. 그러나 이 논문은 조선후기 야담에 나타난 성윤리관의 변모 양상을 직접적으로 다룬 것이 아니고 상녀재가형 야담의 양상과 그것이 갖는 사회적 의의만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본고의 논의와는 조금 다르다.

물질주의적 세계관의 대두를 들 수 있겠다.

유교적 지배체제의 약화는 유교윤리적 사회 질서의 약화를 초래했다. 이러한 현상은 인간 본연의 욕망을 긍정하고 자유롭게 드러내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특히 신분체제의 동요는 유교윤리로 대변되는 전통적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왔다. 봉건적 도덕의 굴레로부터 벗어나 인간성을 긍정하게 된 것이다. “남녀의 情欲은 天이요 倫紀의 분별은 성인의 가르침이니 차라리 성인의 가르침을 어길지언정 天稟의 본성은 감히 어길 수 없다”³⁾라는 허균의 말은 당대인의 변화된 성윤리의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는 나아가 “예교가 어찌 자유로움을 구속하리요. 부침을 다만 정에 맡겨 하겠노라”⁴⁾ 라고 하여 烈에 대한 情의 우위를 주장하기도 했다. 경직화된 인륜도덕을 비판하면서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를 긍정하려는 당대의 움직임은 보여주는 예는 燕岩에게서도 찾을 수 있다. 연암은 “생각은 그윽하고 외로운 데서 생긴다. ……과부는 그윽하고 외로운 곳에서 상처를 입고 지극한 슬픔을 겪는다. 血氣는 때에 따라 왕성해지는 것이니 어찌 과부라고 해서 정이 없겠는가”⁵⁾라고 하여 인간 본성을 긍정하고 있다. 또한 “그러나 국전에는 개가한 여자의 자손에게는 정직을 주지 말라 하였으니 어찌 못 백성들을 위해 설정한 법이겠는가”⁶⁾라고 하여 인간 본성을 억압하고 있는 당대의 윤리적 질서체제를 은근히 비판하고 있다. 허균과 연암의 말은 성·정을 천래적인 것으로, 인간 본래의 것으로 인정하고, 이러한 성·정을 저속한 것으로 간주하는 사회적 통념을 부정하려는 당대인들의 의식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은 유교윤리에 입각한 기존의 정신주의적 세계관을 물질주의적 세계관으로 변모시켰다. 이러한 물질주의적 세계관은 세태와 풍속의 변화를 초래했고 그 가운데 성의식의 변화도 가져왔다. 『청구야담』에 실려 있는 「誇丈夫西貨滿馱」은 물질주의적 세계관이 당대인의 성의식을 어느 정도까지 변화시켰는지를 잘 보여 준다.

3) 안정복, 「天學問答」, <順菴集> 17.

4) 허균, 「閑龍官作」, 영인본 <許筠全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75, 28쪽.

5) 박지원, <燕巖集> 경희출판사, 서울 1966, 118쪽.

6) 박지원, 「열녀함양박씨전」 중.

- ① 남편 있는 여자가 과거 보기 위해 집에서 유숙하고 있는 선비와 私通하다.
- ② 남편은 이 장면을 목격하나 자기 아내가 아닌 딴 여자인 줄 알고 자리를 피해 준다.
- ③ 선비는 급제 후에 평안감사가 되다.
- ④ 남편이 안면을 이용하여 재물을 얻어러 갔으나 박대만 받고 돌아 오다.
- ⑤ 아내가 찾아가서는 많은 재물을 얻어 오다.
- ⑥ 남편이 이상하게 여겨 연유를 물으니 아내가 사실대로 말해 준다.
- ⑦ 남편은 “그때 아래에 누운게 넌 줄 몰랐기에 망정이지 만일 알았더라면 오늘의 이 많은 재물을 어찌 얻을 수 있었겠는가”하며 아내의 부정을 눈치채지 못했던 것을 매우 다행으로 여기다.
- ⑧ 부부는 재물 얻은 것을 좋아하여 서로 박장 대소하다.

이 작품 속의 부부는 열이라는 윤리보다는 재화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재물을 얻을 수만 있다면 윤리 따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많은 재물을 얻어 오게 되자, 그 아내는 지금까지 감추어 왔던 자신의 불륜을, 용서를 구하거나 미안해 하는 기색도 없이 오히려 얼굴에 웃음을 띠면서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아내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데에는 불륜이야 어쨌든 그것이 재물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아내의 태도에 대해서 남편 역시 기존의 윤리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는 아내의 부정에 대해서 조금도 탓하지 않고 오히려 아내의 부정을 눈치 채지 못했던 것을 천만 다행으로까지 여기고 있다. 남편의 이러한 반응 역시 불륜이야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것이 재물을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부부가 좋아하며 서로 박장대소했다는 이 작품의 결말은 성의식의 변모라는 측면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준다.

Ⅲ. 성의식 변모의 구체적 양상

1. 烈의 格下와 인간 본성의 긍정

조선조에 와서 烈이 절대적으로 숭상된 데에는 性과 貞節의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직접 관여하였기 때문이다. 성리학적 지배이념을 확고하게 하기 위하여 여성에게 貞節과 婦德을 강조하는 제도적 기반을 만든 것이다. 세종대에 남자

집단과 여성 집단의 접촉을 금하고⁷⁾, 여자는 삼촌 이외의 남자를 방문할 수 없으며⁸⁾, 부인이 외출할 때는 얼굴을 가리라⁹⁾는 조처를 취하였는데 이는 모두 여성들의 외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열이 극단적으로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성종대부터이다. “이후로 재가녀의 자손은 土版에 들지 않도록 하여 풍속을 바르게 하라”¹⁰⁾라고 하여 재가녀의 자손을 禁錮하는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열의 문제를 여성 개인의 문제에서 가족 구성원과 가문을 포함한 사회적인 문제로 바꾸어 놓고 있다. 이후 열은 조선조 여인들에게 변할 수 없는 정조관으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마침내는 법적 제재가 없었던 평민이나 천민에게까지 깊숙히 침투하였다.

이렇듯 이념적인 문제로까지 제도화된 틀로서의 열에 대한 관념이 조선 후기에 들어 점차 약화되기 시작했으며, 더러는 그 권위와 가치가 극단적으로 격하되어 부정되기도 했다. 『어우야담』에 실려 있는 「男女之間大慈存焉」은 열의 가치가 현저히 약화된 모습을 잘 보여 준다.

- ① 어떤 권세가에 새로 시집 온 부인이 있었다.
- ② 비단 장사가 부인을 보고 반하여서는 비단으로 그 집 유모를 껴어 계락을 짜다.
- ③ 남편이 절에 공부를 하러 간 사이 유모의 계락으로 비단장수와 부인이 간통하게 되다.
- ④ 이로부터 밤마다 부인과 비단장수는 서로 정을 통하다.
- ⑤ 하인이 알아채고 집주인에게 고하다.
- ⑥ 집주인이 하인들을 시켜 비단장수를 잡아 죽이다.

이 작품에서 사대부가의 부인은 남편이 절에 공부하러 간 사이에 유모의 계락에 의해서 비단장수에게 정조를 잃은 후 별다른 저항 없이 그 비단장수를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남편을 멀리하고 비단장수를 더욱 가까이 한다. 부인의 이러한 행위는 정절을 매우 중요히 여기는 당대의 윤리관에 비추어 볼 때 사대부가의 부녀자로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일반적으로 <간

7) 『세종실록』권 44, 세종 11년 4월 庚寅.

8) 『세종실록』권 52, 세종 13년 6월 丁巳.

9) 『세종실록』권 49, 세종 12년 8월 癸未.

10) 自今 再嫁女子孫 不齒土版 以正風俗.(『성종실록』권 82, 8년 7월 丁酉).

통담>의 주인공은 평민이나 천민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은 열에 대한 의식이 아무래도 평민이나 천민이 양반 사대부보다는 약하기 때문일 것이며, 그만큼 인간의 본성을 긍정하는 의식이 강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이 작품의 주인공이 사대부가의 부녀자라는 사실은 열보다는 인간 본연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긍정하는 의식이 양반 사대부 계층에까지 스며들었음을 보여 준다.

열보다는 인간의 본원적 성정을 보다 중시하는 조선조 여인의 모습을 『청구야담』 소재 「信卜說湖儒探香」에서 찾을 수 있다. 작품 속의 여인은 민촌 서민 부자의 딸로 결혼한 지 일년 만에 남편을 여의고, 수절하기로 결심했으나 운명적으로 한 선비를 만났을 때, 거절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새삶을 개척해 나간다. 그녀는 꿈을 빙자하여 선비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동침하고는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능동적으로 계책을 세우고 치밀하게 실행한 끝에 자신의 의지대로 재가에 성공한다. 그녀가 꿈을 통해서 선비와 자신의 숙명적인 인연을 강조함으로써 자신의 절절을 정당화시키려고 한 것은 아직까지 그녀에게 열에 대한 의식이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녀에게 있어 열은 더 이상 인간의 본성을 억누를 만큼 권위적이거나 가치있는 것은 아니었다.

한편, 열의 권위가 극단적으로 격하되어 부정되기에 이른 경우도 있다. 이러한 예를 『동야휘집』 소재 「聽聲密奸選竹刺」에서 찾을 수 있다.

- ① 松堂 朴英이 김해부사로 있었다.
- ② 하루는 이웃집에서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리므로 데려오게 하다.
- ③ 여자가 남편이 갑자기 죽었다고 고하다.
- ④ 공이 의심하여 검시하게 하니 竹針이 나오다.
- ⑤ 여자가 간통 사실이 남편에게 탄로나자 정부와 짜고 살해한 것이다.
- ⑥ 여자와 情夫를 함께 징치하다.

이 작품에서 여자는 간통한 사실이 남편에게 들키자 정부와 짜고 남편을 살해하게 된다. 이 여인에게서 우리는 열의 권위와 가치를 조금도 찾을 수 없다. 즉 열의 권위와 가치가 완전히 부정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와 같이 간통으로 인한 殺夫의 이야기가 조선후기 문헌설화에 빈번히 나온다는 것이다.¹¹⁾ 이 점은 당대인들의 烈에 대한 의식이 얼마나 약화되었는가를

11) 이와 같은 이야기가 『계서야담』(朴久堂英), 『기문총화』(朴松堂英), 『靑野談

알려주며, 나아가 조선조 여인들의 내면적 성의식의 일면을 보여준다.

열의 권위와 가치를 정면에서 부정하는 작품도 있다. 『청구야담』 소재 「唱義兵賢母勸子」의 여주인공은 자신이 ‘사대부가의 여인이 아니므로 얼굴도 모르는 亡夫를 위해 수절함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천한 신분인 자신에게 수절은 필요 없다’라고 하여 수절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밝힌다. 재가의 뜻을 분명히 밝히고 주변인물들을 설득해 나가는 그녀의 행위는 잘못된 관습과 규범에 얽매이기보다는 인간본연의 감정에 충실하겠다는 의지의 강렬한 표현으로 조선후기 여인들의 바뀐 성의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시기의 문헌설화 가운데는 과부로서 再嫁한 이야기가 적지 않다.¹²⁾ 再嫁禁止법이 엄연히 존재하던 시절에 재가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전한다는 사실은 이 시기에 이르러 과부의 재가가 공공연히 이루어졌음을 알려 준다. 과부의 재가담에는 대부분 규범이나 체면보다는 인가 본성의 우위를 강조하는 의식이 내재되어 있다. 며느리와 딸에게 改嫁를 권유하는 노부인의 이야기를 담은 『동야회집』 소재 「授簡書老婦垂誠」에서는 남녀간의 애정은 天賦의 본성으로 인간에 내재된 강력한 욕망이기에 억압하기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자신의 눈물겨운 과거 고백을 통해 깨닫게 하고 있다. “혹시 불행하여 젊은 나이에 홀로 된 때에는 스스로 생각해 보아 수절할 자신이 있으면 수절하고, 그렇지 못하겠으면 위로 어른께 고하고 개가하는 것도 좋은 방편이니라”¹³⁾ 라는 장씨 부인의 유훈은

蔽(『東隣女乘醉行凶金海倅迎屍親按』) 등에도 나온다. 이러한 사실은 간통으로 인한 살부에 관한 이야기가 당시 시정에 많이 떠돌던 흥미있는 이야기였음을 알려준다.

12) 손정화는 孀女가 재가한 이야기를 주변인물(대체로 친정부모나 시아버지, 친정 오빠)의 권유에 따라 수동적으로 재가한 경우와 주변인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孀女 자신이 적극성을 띠고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경우로 나누고 있다.(손정희, 앞의 논문, 10쪽)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작품은 주로 후자의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는 대체로 이야기의 촛점이 孀女의 성의식에 맞추어져 있지 않고 상녀를 가엾게 여겨 재가금지법을 어기면서까지 재가를 배려해 주는 주변 인물들의 진한 인간미에 맞추어져 있어 본고의 논의와는 다소 거리가 멀다. 반면에 후자의 경우는 당시의 사회습속과 규범을 초월하여 인간 본연의 감정에 충실하여 그것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행동으로 실천하는 여인들의 모습에 서술의 초점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성의식의 변모라는 본고의 논의에 적합하다고 여겨진다.

13) 倘不幸青年寡居 自量可守則守之 否則上告尊長 竟行改醮 亦是大方事.

殉死와 수절을 천리로 신봉했던 당시에는 실로 대담한 발언이라고 여겨진다.

열보다는 인간 본성을 더 긍정하는 서술 태도를 보여 주는 작품들도 있다. 『청구야담』 소재 「權斯文避雨逢奇緣」은 권생과 처녀과부와의 성관계를, 전통적 윤리관에서 보면 불륜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으로서 자연스럽게 진실한 일로 묘사하고 있다. 특히 이 작품에서 서울의 시전 상인인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재가를 적극 권장하고, 며느리가 재가를 원하지 않자 陰陽의 이치만이라도 알게해 주려고 노력한다. 그는 며느리가 외간 남자와 동침을 하게 되자 마치 소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기뻐하고 있다. 시아버지에게는 며느리가 수절하거나 아들을 따라 자진하여 주위로부터 열녀라는 칭송을 듣는 것보다는 며느리가 한 인간으로서 인간의 본성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이다. 시아버지가 열을 숭상하는 당대의 사회습속을 탈피하여 인간 본성을 중요하게 여긴 데에는 그가 시전상인이라는 사회적 지위도 한몫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청구야담』 소재 「憐孀女宰相囑窮車」는 한 재상이 홀로 된 딸을 곤궁한 무변에게 재혼시켰다는 이야기로 시속을 역행한 재상을 오히려 인간적인 아버지로 묘사하고 있으며, 『동야회집』 소재 「嚴舅權術懼妬婦」는 과부가 되어 자신의 집에 머무르는 여동생을 재가시키는 오빠의 이야기와 과부와 관계를 맺은 권생이 과부를 소실로 취하는 과정을 흥미롭게 그리고 있는 작품인데, 작가는 혼자된 여성이 다른 남자와 인연을 맺고자하는 것을 인정상 당연한 이치로 서술하고 있다.

2. 자유로운 성의식의 표출

조선후기인들의 성의식의 변화는 평민 계층에서 먼저 나타난다. '烈女不更二婦'라는 조선조 사대부 여인들의 정조관을 따랐던 일반 서민들의 성의식¹⁴⁾이 관념적이고 위선적인 봉건적 도덕의 굴레에서 벗어나 솔직하고 자연스럽게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고 인간 본연의 욕망을 노출시키고 긍정하는 방향으로 전개된 것이다. 평민 계층에서 싹트기 시작한 자유로운 성의식은 점차 사대부가

14) 김상조는 이러한 현상을 '지배 이데올로기의 하향적 침투'라고 했다.(김상조, 앞의 논문, 앞의 책, 218쪽.)

로 스며들게 된다. 즉 烈로 대변되는 확고적이고 관념적인 성의식이 지배계층인 양반 사대부로부터 피지배계층인 평민·천민으로 영향을 미쳤다면 자유로운 성의식은 피지배계층인 평민·서민으로부터 지배계층인 양반 사대부에게로 영향을 미친 것이다.

『청구야담』 소재 「聽驟藥商得子」은 평민 계층의 자유분방한 성의식을 서정적이고도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다.

“……비를 피하기 위해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산기슭에 있는 한 초막을 발견하고 곧바로 초막으로 들어가니 한 노처녀가 있었소. 나는 먼저 젖은 옷을 빨았는데, 처녀는 곁에 있으면서도 피하지 않았소. 갑자기 나는 마음이 동하여 그녀를 강제로 범하려 하였는데도 그녀는 조금도 저항하는 기색이 없었소. 조금 후 비가 그칠길래 나는 그녀의 거주지도 묻지 않고 곧장 그곳을 떠났었소. 오늘 내리는 비가 꼭 그때의 소나기 같으므로 우연히 생각이 난 것이라오.”

이 작품은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과 내용 뿐만 아니라 서정적인 어조까지 매우 비슷하다. 그러나 조선시대라는 시대 상황을 고려해 보면 작품 속의 노처녀의 태도는 이해하기 힘들 만큼 매우 파격적이다. 낮선 남자가 젖은 옷을 벗어 뺌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고 곁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조선 조 여인의 정숙한 태도라고는 볼 수 없는 태도가 남자의 靚狎에 조금도 저항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과 서로 이름도 거주지도 묻지 않고 아무런 정표도 남기지 않고 헤어졌다는 점은 현대의 젊은이에게서조차 찾기 힘든 태도이다. 노처녀가 낮선 남자가 자기를 친압하도록 분위기를 유도했다고도 여겨진다. 사회적 관습과 규범의 틀을 무조건 수용하기보다는 인간 본연의 감정에 충실하여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나간 여인의 행동양식은 조선후기 서민의 자유로운 성의식의 표출로 볼 수 있다.

자유로운 성의식의 표출이 너무 지나친 나머지 비천하고 추악한 것으로 여겨지는 작품도 있다. 『동야휘집』 소재 「還狐裘新舊合緣」은 간통으로 인한 남녀 이합을 그린 작품으로 조선시대의 사람들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자유로운 성의식을 보여주는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다.

① 宣川 사람 崔生은 나이가 20여 세인데 매우 아름다운 처와 금슬 좋게

살고 있다.

- ② 남편이 호남으로 장사를 간 사이에 구슬 파는 노파의 꺾에 넘어 가 선천에 장사하러 온 호남상인과 동침하게 되다.
- ③ 이후 객과 여자는 반 년간 밤마다 만나서 사랑을 나누다.
- ④ 최생이 이 사실을 알고 여자를 친정으로 쫓아버리다.
- ⑤ 얼마 후 오씨 성의 蔭官이 첩을 구하자 최의 아내가 그의 재산을 보고 오씨의 첩이 되다.
- ⑥ 집으로 온 호남 상인은 여자를 잊지 못하여 그리워 하다가 그 처와 싸우고 關西로 나왔다가 객사에서 절명하다.
- ⑦ 최생이 호남으로 장사를 나갔다가 한 여자를 얻었는데 바로 절명한 호남 상인의 처 유씨였다.
- ⑧ 최생이 시장에서 시비 끝에 늙은이를 죽게 하여 고소당하였는데 官守였던 오음관의 덕으로 살아 남다.
- ⑨ 오음관이 최의 전처를 보내 주니 최씨는 두 여자를 함께 데리고 살다.

최생과 그의 아내의 행적은 자유분방한 성의식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너무 지나친 나머지 추한 느낌마저 준다. 특히 최생 처의 최생→호남상인→오음관→최생으로 이어지는 행적은 천박한 느낌마저 준다. 남편을 가진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에 외간 남자와 매일 밤 정을 통하고, 남편에게 탄로되어 친정으로 쫓겨갔으면서도 재산을 탐내어 또 다른 남자의 첩이 되었고, 그러다가 다시 본래의 남편에게로 아무런 거리낌 없이 돌아 온 여인에게서 열에 대한 의식이라고는 조금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그녀에게는 성욕과 탐욕만이 보이고 있다. 아내의 정부의 여자와 같이 살면서도 불륜을 저지른 끝에 남의 첩이 되어 있는 아내를 다시 받아들인 최생의 행동도 조선시대 일반적인 남성의 행동양식과는 다르다. 그가 당대의 일반적인 성의식에 젖어 있는 인물이었다라면 결코 아내를 다시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결국 그는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변모된 성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최생이나 최생의 아내와 간통한 사람이나 모두 상인이라는 사실이다. 이 점은 조선후기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계층으로 성장한 상인 계층들이 가장 자유로운 성의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려준다.¹⁵⁾ 결국 조선후기에 이

15) 필자가 대상자료로 삼은 문헌설화 가운데 등장인물의 상당수는 평민이며, 그 중에서도 자유분방한 성의식을 보여 주는 인물은 대부분 상인이거나 상업과 관련이 있는 인물들이었다.

르러 나타나기 시작하는 변모된 성의식은 시전 상인계층으로부터 일반 서민들
에게로, 일반서민들에게서 다시 양반 사대부가로 변져 나갔음을 알 수 있다.

조선조 여인의 자유 분방한 성의식을 보여 주는 또 다른 작품으로 『청야담
수』소재 「殺—淫女活—不辜」가¹⁶⁾ 있다.

- ① 용산의 車夫 하나가 인가 벽에다 방뇨를 하는데 한 아리따운 여인이
누대 위에서 보고 그를 불러들이다.
- ② 그 여자는 별감의 부인으로서 차부에게 목고 가도록 간청하다.
- ③ 차부와 여자가 음란하게 놀다.
- ④ 입직하던 별감이 돌아와 온 김에 여자와 관계하려 하니 여자가 꾸짖
어 돌려보내다.
- ⑤ 여자가 숨겨 두었던 차부와 함께 매우 음란하게 놀다.
- ⑥ 여인이 잠든 후 차부는 문득 깨닫는 바가 있었다.
(저렇게 훌륭한 남편을 두고 천민인 나를 끌어 들인 것은 순전히 내
가 소변을 보는 것을 엿보고 음욕이 발동했기 때문이다)
- ⑦ 차부가 여인을 찔러 죽인 후 도망치다.

이 작품 속에 나오는 여자는 淫婦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그녀
는 차부에게 조금도 마음이 없으면서도 단지 소변 보는 것을 보고 음욕이 발동
하여 침실로 끌어들여 음란한 짓거리를 한다. 더군다나 그녀는 남편이 찾아와
서 관계할 것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음욕을 채우기 위해서 남편을 매정
하게 꾸짖어 돌아가게 하고는 다시 차부와 음란한 짓거리를 하는 대담함을 보
여 주고 있다. 여기서 주목하여야 할 것은 그녀가 별감의 아내라는 사실이다.
별감은 서리직으로서, 대개 멋을 부리고 향락적인 생활을 누리는 경향이 있었
다고 한다.¹⁷⁾ 따라서 작품 속의 여인이 그토록 음란하게 된 데에는 이러한 분
위기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한편, 이 시기의 문헌실화 가운데는 신분을 초월한 사랑 이야기도 많이 전한
다. 신분을 초월한 사랑은 현실적 제약을 무릅쓰고 순수한 사랑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자유로운 성의식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분이 다른 두 사람
의 사랑이 사회적으로 승인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비극으로 끝난다. 사

16) 『기문습유』에는 「龍山車夫」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는데, 具樹勳의 「二句錄」이 원
전으로 되어 있다.

17) 이우성·임형택, 『李朝漢文短篇集』, 下, 319쪽 참조.

회적으로 승인받은 경우를 『청구야담』 소재 「聽妓語悖子登第」을 통해서 한번 보자.

- ① 평양감사의 아들이 기생을 희롱하다.
- ② 눈 오는 날 절간에서 독서를 하던 중 문득 그 기생에게 연정을 느낀다.
- ③ 남몰래 기생을 찾아 평양으로 향하다.
- ④ 신입 평양감사의 총애를 받고 있던 기생을 만나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함께 숨어 살다.
- ⑤ 소년이 과거에 급제함으로써 그들의 관계를 인정받게 되다.

이 작품에서 소년은 자신의 행동이 반사회적 반도덕적인 悖子의 짓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선택하고 있다. 기생도 소년의 순수한 사랑에 감동을 받아 기생이 아닌 한 인간으로 돌아와서 소년의 지극히 인간적인 순수한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두 사람은 평양감사의 아들과 기생이라는 신분을 초월하여 순수한 인간 대 인간으로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순수한 인간적인 사랑은 세상에는 용납되지 못하는 것이어서 그들은 온갖 위협과 시련에 봉착하게 된다. 그들의 성실한 노력으로 소년이 과거에 급제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인정받게 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된다. 현실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택하게 되고,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랑을 인정받게 되는 두 사람에게서 우리는 관념적이고 획일적이며, 비인간적 순응적인 기존의 성의식과는 다른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으로 자신의 사랑을 쟁취해나가는 새로운 성의식을 발견하게 된다.

한편, 비극적인 종말을 고하는 경우는 『청구야담』 소재 「崔崑崙登第背芳盟」과 『담정총서』 소재 「沈生」 등에서 찾을 수 있다.

「崔崑崙登第背芳盟」의 여주인공은 시전 상인의 딸로, 문학적인 교양이 있었고, 정서가 발달한 소녀였다. 소녀는 상인의 딸이라는 신분적 제약 때문에 자기가 바라는 신랑감을 만날 수 없었다. 그래서 소녀는 문학적인 교양이 없는 남자와 무의미한 인생을 사느니보다 비록 소실이라도 문학을 이해하고 감정이 통하는 생활이 낫다고 여겨 문인의 소실로 들어갔다. 그러나 남자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되자 자결하고 만다. 부부 관계는 서로간의 믿음과 사랑이라고 생각했기에 믿음이 없고 사랑이 식은 남자와는 같이 살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재기과인

하고 자의식이 무척 강한 여주인공을 자살로까지 몰고 간 애정갈등은 사실 신분 갈등에서 연유한 것이다. 아무튼 이러한 소녀의 행위는 자기의 감정과 의식에 따라서 사랑을 택하는 자유로운 성의식의 발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심생」 역시 부유한 중인의 딸로서 재치있고 정서가 발달한 여주인공과 서울 양반인 심생과의 신분적 갈등으로 인한 悲戀을 그린 작품이다.

- ① 서울 양반인 심생이 우연히 길에서 본 중인의 딸을 깊이 사모하다.
- ② 심생이 사랑을 획득하기 위해 일심전력으로 노력한 끝에 마침내 두 남녀의 결합이 이루어지다.
- ③ 이후 심생은 부모 몰래 자주 그 여인과 동침을 하다.
- ④ 심생의 부모가 심생의 행동을 의심하여 그를 절에 가서 공부하게 하다.
- ⑤ 처녀가 유서를 보낸다.
- ⑥ 심생은 충격으로 학업을 포기하고 무변이 되었으나 고민 끝에 일찍 죽다.

심생은 서울 양반으로서 고귀한 신분인데 반하여 여주인공은 재기발랄한 부잣집 딸이었으나 그 신분은 중인에 불과했다. 심생이 이 처녀에게 강렬한 애정을 느끼고 사랑을 획득하기 위해서 일심 전력으로 노력한 탓에 두 남녀의 사랑은 이루어지긴 했으나 양반과 중인이라는 신분적 갈등 때문에 그들의 사랑은 결국 죽음으로 끝나고 만 것이다. 심생의 죽음은 한 여성에 대한 지극한 사랑 때문에 끝끝내 현실에 순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신분의 차이를 분명하게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인 계층의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한 심생과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인 줄 알면서도 자의적으로 심생을 받아들인 여자의 행위는 분명 이전과 달라진 그들의 자유로운 성의식을 엿보게 해준다.

조선후기 문헌설화에 보이는 자유로운 성의식의 표출은 자기의 감정과 의식을 살리는 자아 각성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그들이 자아 각성하게 되고 새로운 성의식을 갖게 된 데에는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사회 구조의 변화와 이에 의한 새로운 사회 관계의 형성이 큰 영향을 미친 것 같다. 특히 변화된 성의식을 보여주는 인물들의 대부분이 남자의 경우는 상인 계층이고 여자의 경우는 부유한 중인 계층의 여자라는 사실이 이를 증명해준다. 이들은 중세봉건사회에서 근대사회로 이행되어 가던 조선후기라는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맨 앞에 섰던 인물들이다. 따라서 이들의 변모된 성의식은 근대

지향적 의식의 일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변모된 성의식은 그들의 뒤를 쫓아 오던 일반 평민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이러한 변화된 성의식은 점점 사회 전반으로 퍼져 최후에는 가장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양반 사대부 계층에까지 점차로 스며들었을 것이다.¹⁸⁾

4. 작가의식의 성장과 그 한계

조선후기 문헌설화를 통해서 우리는 진보된 작가의식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우선 그들은 련을 극단적으로 강요하는 중세적 가치관을 비판하고 인간의 본성을 긍정하고 있다. 그들은 성을 타고난 본성으로 인정하고 성적 욕망을 인간이 가지는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려 했던 것이다. 대부분의 孀女再嫁談에서 재가를 비판하기보다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지극히 인간적인 행위라고 옹호하는 것이나 「聽驟藥商得子」(『청구야담』)에서 낮은 남자와 한 처녀와의 일회적인 통정을 매우 서정적이고도 아름답게 묘사한 것 등이 이를 잘 증명해준다. 특히 「崔崑崙登第背芳盟」(『청구야담』)과 「沈生」(『담정총서』)의 경우 작가는 이들의 비극적인 사랑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들의 신분을 초월한 사랑을 은연 중에 긍정하고 있음을 작품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다.¹⁹⁾

18) 양반사대부 계층의 경우 그 대상이 주로 부녀자인 경우가 많은데, 이 점은 그들이 비록 고귀한 신분을 지녔을지언정 봉건사회의 피해자였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19) 「崔崑崙登第背芳盟」에서 작가는 시종일관 배산당한 시전상인의 딸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다. 작가의 이러한 태도는 시전 상인의 딸이 자결했다는 사실을 안 소년의 아버지 최정승이 소년의 신의 없음과 박정함을 꾸짖고 죽은 여자의 영전에 가 후회막급이라는 뜻으로 곡을 하고 초종 범절을 몸소 간검하여 여한이 없도록 하라는 대목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 점은 「沈生」에서도 마찬가지다. 작가는 심생과 중인 처녀와의 사랑을 매우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다. 특히 중인 처녀의 유서를 받고 자기도 모르게 울음과 눈물을 쏟는 심생에게 한 “이제 비록 슬프게 통곡한들 무엇하겠는가?(雖哭之慟亦無奈矣)”라는 작가의 말에는 신분을 초월한 두 사람의 사랑이 비극적으로 끝난 데 대한 작가의 안타까운 심정이 진하게 배어있음을 아 수 있다. 이처럼 신분을 초월한 사랑도 은근히 인정하려는 작가의 태도는 분명 그들의 작가의식이 한단계 성장했음을 알려준다.

한편, 작가의식의 성장은 작품 속에서 표출된 문제의 원인을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에게서 찾으려 하지 않고 사회 제도의 모순에서 찾으려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감지할 수 있다. 사실 본고에서 예로 든 작품들의 내용은 간통, 과부의 재가, 신분을 초월한 사랑, 재물과 바꾼 정조 등으로 당시의 사회규범이나 풍속으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것들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가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버젓히 다루고 있을 뿐더러 그들의 행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옹호하기까지 한다. 이러한 사실은 작자들이 당대의 사회규범이나 풍속과는 상반되는 이들의 행위를 나무라기보다는 이렇게까지 행동할 수밖에 없게 만든 당대의 사회규범이나 풍속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려준다 하겠다.

한편, 조선후기 문헌설화의 작자들은 봉건적 통치질서의 모순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모순을 정면으로 문제삼지 않고 모순으로 인해 발생한 이차적인 세태나 풍속만을 있는 그대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스스로의 한계를 보여 주기도 한다. 그들은 봉건적 억압으로부터 인간의 해방을 주장하면서도 억압의 주체인 지배층이나 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회제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삼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해준다.

조선후기 문헌설화에서의 이와 같은 작자 의식의 성장과 한계는 그들 대부분이 토계층이었다는 사실과 함께 봉건적 제 구축을 탈피하여 근대적 인간 해방을 지향하는 이 시기의 역사적 현실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중세 해체기-근대 이행기라는 과도적 역사 발전 단계를 살아갔던 이들의 세계관은 새롭고 진보적인 측면과 낡고 보수적인 측면을 함께 지닐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²⁰⁾ 그들의 의식 속에는 봉건적 의식의 잔재가 청산되지 못한 채 근대적 의식과 공존하면서 내적으로 서로 대립·반목하고 있었을 것이다.²¹⁾ 따라서 그들은 원래의 이야기가 지녔던 문제의식이나 사회 비판성 등을 발전적인 방향에서 수용하기 보다는 단순한 흥미 본위로 부연하고 운색하는 방향으로 수용한 것이다.

20) 문헌설화 작가들의 세계관에 대해서는 박희병, 청구야담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1, 171~183쪽 참조.

21) 물론 이들의 의식은 점차 진보적인 근대적 의식 쪽으로 이행되어 갔을 것이나 조선후기 문헌설화에는 아직까지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V. 결 론

본고에서 다룬 작품들은 전반적으로 17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이르는 중세 봉건 사회의 해체기-근대로의 이행기라는 조선후기의 역사 발전 단계에 대응하여 생산된 것들이다. 따라서 이들 작품들은 이행적이었던 당대 역사에 상응하여 그 내용이 대체로 이행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조선후기 문헌설화가 지니는 이러한 이행적 성격은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로 인해 새로운 사회 계층으로 성장한 도시 상인 계층의 의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들은 관념적이고 위선적이며 비인간적인 기존의 사회규범이나 풍속을 따르기보다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향에서 인간의 본성을 긍정하고 그것을 능동적으로 실천하려 했다. 그들의 이러한 의식의 한 단면이 그들로 하여금烈的 격화와 인간 본성의 긍정이라는 새로운 성의식을 갖게 했다. 이와 같은 시정 상인들의 진보된 성의식이 점차 일반 서민과 양반 계급 내부에까지 스며 들어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었음은 이미 조선후기 문헌설화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 이를 간단히 요약 정리해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烈的은 조선후기에 들어 그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권위와 가치는 점차 약화되기 시작했으며, 더러는 그 권위와 가치가 극단적으로 격화되어 부정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사실은 「男女之間大慾存焉」(『어우야담』), 「信卜說湖儒探香」(『청구야담』), 「聽聲密奸選竹刺」(『동야회집』), 「唱義兵賢母勸子」(『청구야담』), 「權斯文避雨逢奇緣」(『청구야담』), 「嚴舅權術懼妬婦」(『동야회집』) 등의 작품들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둘째, ‘烈女不更二婦’라는 조선조 여인들의 성의식은 점차 관념적이고 위선적인 봉건적 도덕의 굴레에서 벗어나 솔직하고 자연스럽게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고 인간 본연의 욕망을 노출시키고 긍정하는 방향으로 변모되었다. 이와 같은 의식의 변화는 평민 계층으로부터 시작되어 점차 양반 사대부 계층으로 퍼져나갔다. 「聽驛藥商得子」(『청구야담』), 「還狐裘新舊合緣」(『동야회집』), 「殺一淫女活一辜」(『청야담수』), 「聽妓語悖子登第」(『청구야담』), 「崔崑崙登第背芳盟」(『청구야담』), 「沈生」(『담정총서』) 등의 작품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 준다.

셋째, 이상의 검토를 통해서 성을 타고난 본성으로 인정하고 성적 욕망을 인

간이 가지는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면서 烈을 극단적으로 강요하는 중세적 가치관을 비판하고 인간의 본성을 긍정하는 진보된 작가의식의 일면을 엿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봉건적 통치질서의 모순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통치질서의 모순을 정면으로 문제삼지 못하고 모순으로 인해 발생한 이차적인 세태나 풍속만을 있는 그대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작가의식의 한계는 중세 해체기-근대 이행기라는 과도적 역사 발전 단계를 살아갔던 이들이 새롭고 진보적인 측면과 낡고 보수적인 측면을 함께 지닐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현실에서 유래되었을 것이다.

조선후기 문헌설화에 나타난 성의식의 변화를 검토한 본고의 논의는 입병양란이라는 민족의 수난을 겪고 난 후 중세 봉건사회에서 근대사회로 이행되어 가던 과도기적 역사의 흐름 속을 살아갔던 조선후기 사람들의 의식의 변모 양상을 문학이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를 살피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본고의 논의가 보다 더 타당성을 가지려면 이웃 장르인 傳이나 소설과 관련지어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덧붙여 姦通談, 再嫁談, 淫婦·湯夫談 등의 유형별 연구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이는 후일의 일로 미룬다.